

# “스펙 부풀리자” 고교 교내수상 몰아주기

### 전남 학생 1명이 44개...광주 7개교 특정학생 20개 이상씩 학생 300명 학교 4423개 상장 남발...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지난해 순천팔마고 A학생은 교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총 44개의 상을 받았다. 수상 실적 상위 5명이 받은 상장 갯수는 무려 147개에 달했다. 전체 학생이 724명이 이 학교는 같은해 교내대회를 118개 열어 4091명(중복수상 포함)의 수상자를 냈다. 같은 해 광주 서석고 B학생은 학교 주관 대회에서 29개의 상을 휩쓸었다. 그 해 교내 대회는 37개가 열렸고 모두 1152명(전체학생은 952명)의 수상자가 나왔는데, 수상 실적 상위 5명이 받은 상장의 수는 125장에 달했다.

광주·전남 고교 상당수가 교내 대회에서 특정 학생에게 상을 몰아주거나 다수의 학

생에게 상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입 전형 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수상실적)을 부풀려 특정 학생들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연결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현재 중 3 학생이 대상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상경력 기재를 학기당 1개로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에 받은 '2017년 고교별 교내대회 수상 현황'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전체 67개교 가운데 7개교가 특정 학생에게 20개 이상의 상을 줬다. 교내 대회 최다수상자의 총 상장 수는

광주서석고 29장, 살레시오여고 28장, 광덕고·대광여고 각각 25장, 금호중앙여고 24장, 살레시오고 23장, 광주제일고 20장이었다.

광주 한 고교 진학부장은 “성적 우수학생의 경우 1년에 6장은 중간·기말고사 성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교내 경시대회, 봉사대회 등에서 상을 받았다고 해도 총 10장 안팎 정도로, 한 학생이 20장, 30~40장씩 한 해에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정 학생을 위한 상장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전남 고교에서는 특정 학생이 교내 대회상을 수십 개씩 휩쓰는 사례가 더욱 많았다. 142개 고교에서 학생 1인에게 20개 이상 상장을 발급한 곳이 30개교에 달했다. 교내 대회 최다수상자의 총 상장 수는 순천팔마고 44장, 봉황고 33장, 중마고 32

장, 광양제철고 30장, 문태고·광양백운고 29장, 나주고·목포덕인고 28장 등이다. 상장 몰아주기뿐 아니라 상장 남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광양제철고의 경우 전체 학생은 300명인데 그 해 79개의 교내대회를 열어 총 4423명(중복수상 포함)에게 상을 줬다. 순천팔마고는 118개 대회를 열어 총 4091명의 수상자를 냈고 광주 광덕고는 70개 대회를 열어 3490명, 광주 금호중앙여고는 48개 대회를 열어 3600명의 수상자를 냈다.

김해영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따른 스펙 부풀리기 의혹이 여전하다”며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입시 공정성 확보와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 경감을 위해 교내상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뜻말 무색...쓰레기 불법투기 몸살 30일 광주 동구 금남로 거리 한켠에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지역'이라는 뜻말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쓰레기들이 쌓여져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 62면 공영주차장 준공

광주 동구는 “동구 지산동 지산유원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준공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산파출소맞은편인 지산동 105번지 일원에 조성된 주차장(3467㎡ 규모)은 주차 공간 62면과 관리실, 화장실, 주차관리시스템, CCTV 등의 부대시설을 갖췄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 700원이며, 이후 15분이 초과될 때부터 350원씩 가산된다.

동구는 중소벤처기업부 '201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주차환경 개선분야 공모에 선정되며 예산 25억원을 들여 지난 4월부터 주차장 공사를 착공했다.

동구는 지난 29일 열린 준공식에서 (사)무동산보리밥생산자협회는 “맛나게 놀자”라는 주제로 무동산 정상 높이를 상징하는 1187인분의 보리밥 비빔·나눔 행사를 가지며 주차장 활성화와 안전을 기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최근 4년간 광주·전남 학교폭력 사범 3천명

진수 늘고 수위·기법 흉포화

최근 4년간(2014~2017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학생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광주지역 학교폭력 사범은 1168명이다. 2014년 198명, 2015년 357명, 2016년 243명, 2017년 370명으로 증가 추세다.

전남에서는 2014년 387명, 2015년 463명, 2016년 469명, 2017년 520명 등 총 1839명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재정 의원은 “학교폭력 수위와 기법이 날로 흉포해지는 만큼 학교폭력 철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학교 측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유형과 특색을 고려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스쿨미투 여고 교사 11명 검찰 송치

나머지 교사 8명도 곧 송치

광주남부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성추행·성희롱)를 받고 있는 광주 모여고 교사 19명 가운데 1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교사 8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에 송치된 교사 11명 중 2명은 180여명의 피해학생 조사과정에서 성추행·성

희롱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돼 지난 18일 사전 구속됐다.

경찰은 또 최근 해당 고교 졸업생이 접수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교사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여제자를 추행하거나 희롱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직 진술을 하지 않은 학생들로부터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경우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7    달뜨기 22:41  
해질 18:17    달짐 12:15

### 씨늘한 비람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 낮고 바람 강하게 불겠다.

|    |       |       |     |       |       |
|----|-------|-------|-----|-------|-------|
| 광주 | 구름 많음 | 14/21 | 보성  | 구름 많음 | 11/20 |
| 목포 | 구름 많음 | 16/21 | 순천  | 구름 많음 | 14/21 |
| 여수 | 구름 많음 | 16/21 | 영광  | 구름 많음 | 15/21 |
| 나주 | 구름 많음 | 13/21 | 진도  | 구름 많음 | 15/21 |
| 완도 | 구름 많음 | 16/21 | 전주  | 구름 많음 | 14/20 |
| 구례 | 구름 많음 | 12/20 | 군산  | 구름 많음 | 15/20 |
| 강진 | 구름 많음 | 15/22 | 남원  | 구름 많음 | 12/20 |
| 해남 | 구름 많음 | 14/21 | 흑산도 | 구름 많음 | 18/21 |
| 장성 | 구름 많음 | 12/20 |     |       |       |



### ◇ 바다 날씨

|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 (m) | 풍향      | 파고 (m) |         |
| 서해 | 앞바다    | 서~북서   | 0.5~3.0 | 서~북서   | 1.5~3.0 |
| 남부 | 면바다    | 서~북서   | 2.0~4.0 | 북서~북   | 2.0~4.0 |
| 남해 | 앞바다    | 서~북서   | 1.5~3.0 | 서~북서   | 1.5~3.0 |
|    | 면바다(동) | 서~북서   | 2.0~4.0 | 서~북서   | 2.0~4.0 |
| 서부 | 면바다(서) | 서~북서   | 2.0~4.0 | 북서~북   | 2.0~4.0 |
|    | 면바다(남) | 서~북서   | 2.0~4.0 | 북서~북   | 2.0~4.0 |

### ◇ 생활지수

|    |    |
|----|----|
| ☀️ | 관심 |
| ☁️ | 보통 |
| ☔️ | 중음 |

### ◇ 물때

| 목표    | 간조    | 만조    |
|-------|-------|-------|
|       | 11:03 | 05:55 |
| 23:42 | 18:40 |       |
| 여수    | 06:22 | 00:13 |
|       | 19:03 | 13:03 |

### ◇ 주간 날씨

| 2(화)  | 3(수)  | 4(목)  | 5(금)  | 6(토)  | 7(일)  | 8(월)  |
|-------|-------|-------|-------|-------|-------|-------|
| ☀️    | ☀️    | ☀️    | ☀️    | ☁️    | ☁️    | ☀️    |
| 13/23 | 12/24 | 12/24 | 13/25 | 17/25 | 17/23 | 15/24 |

### ‘유학생 불법잡기’ 불법 취업 알선한 대학교

광주의 한 대학교가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불법으로 시간제 취업을 알선해줬다가 발각됐다.

지난 2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최근 모 대학 베트남 국제 유학생 5명이 불법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지난 4월께 입국한 이들은 지난 13일 담양군에 있는 한 농공업체에서 일하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적발됐다.

이들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예나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이들에게 각각 10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고, 업주와 불법취업 알선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대학측은 “불법인 줄 모르고, 학생들의 사정이 딱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 이탈을 막기 위해 한 일”이라며 “대학 자체 조사 결과 추가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유학생 선발 기준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뇌·뇌혈관 MRI 환자 부담 25%로 줄여

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난청 선별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뇌와 뇌혈관(뇌, 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은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질환을 의심한 경우다.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광주·목포에서 장지까지 30분거리

수목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